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46



Contents

※ 2026.09.02.(수) 기준(대상 기간 : 2026.08.26.~2026.09.01.)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 NDC 명시(2026.08.26)	1
– 성주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으로 탄소중립 지원(2026.08.27)	1
– 경북도의회, 철강 탄소중립 전환 촉진 조례 발의(2026.08.27)	2
■ AI 분야	3
– 동남권 4대 성장엔진 확정…제조AI 거점벨트 조성(2026.08.27)	3
– 메가특구법 정기국회 심의…전북 피지컬AI 특례(2026.08.31)	4
– 경북도, 로봇AI교육혁신센터로 융합인재 양성(2026.08.27)	4
– 부산시, 글로벌 AI 허브 유치 국비 확보 총력(2026.09.01)	5
– 용인시, 전통시장 AI 스마트 안내판 도입(2026.09.01)	6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경주교육지원청,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연구 착수(2026.08.27)	7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8

■ 탄소중립 분야 8

- 풀무원·아모레, 탄소중립 국민참여 캠페인 협약(2026.08.26) 8
- KAIST, AI 활용·탄소중립 캠퍼스 전환 비전(2026.08.26) 8

■ AI 분야 9

- SGC에너지, 연내 AI 데이터센터 착공(2026.08.27) 9
- 부산대 대학원생, AI 활용 특허 11건 출원(2026.09.01) 10
- 빌 게이츠, AI 격동기 위협 대비 촉구(2026.08.27) 10
- 트럼프,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에 반박(2026.09.01) 11
- 이란, AI 활용 미 선거 공작...메타 계정 삭제(2026.08.28) 12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 NDC 명시(2026.08.26)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법률에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2030년 이후 비어 있던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구체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 - 개정안은 2030년 이후 5년 단위로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 2035년 목표는 정부가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같은 53~61%로 정하고, 2040년은 하한 69%·상한 80% 수준에서 2031년 6월까지, 2045년은 하한 84%·상한 90% 수준에서 2036년 6월까지 대통령령으로 확정하도록 했으며 감축 부담을 미래에 과도하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목표 설정 원칙과 감축 기술 연구개발·설비 투자·상용화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중장기 감축 목표와 이행 상황을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독립 자문기구인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금융·전환금융 정의 신설과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담았으며, 적응 관련 조항을 분리한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위험 평가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지역별 기후영향 조사와 기후위험의 공간정보 시각화 공개 등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이행 체계 정비를 시사
	☐ 성주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으로 탄소중립 지원(2026.08.27) - 성주군 산림과가 난방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7년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난로)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히며,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용(임업·농업용, 상업용,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용)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시설용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친환경 난방기기 보급을 추진 - 주택용은 산림청 등록 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로 구성되고 사회복지용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전액 지원되며, 난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 외는 자부담으로 하는 지원 체계 아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성주군 산림과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 구조를 구성 - 최종 지원 대상자는 2027년 1월부터 2월 사이 산림청에서 선정될 예정으로 선정 이후 제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성주군 산림과장은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 사업이 난방비 부담을 덜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추가 신청으로 접수 기간이 촉박한 만큼 제출 서류를 확인해 기한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역 주민의 난방비 절감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기대
지자체	□ 경북도의회, 철강 탄소중립 전환 촉진 조례 발의(2026.08.27)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경북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히며, 최근 국회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전기요금 직접 감면 등 산업계가 요구한 혜택이 제외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조례 제정을 추진 - 조례안에는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수적인 지역 전력망·용수 공급망·수소 공급망 확충을 위한 도지사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산학연 공동 연구, 사업재편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재정적 근거를 담았으며, 오는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확인 - 경북도는 이 조례를 마중물로 2026년 정부의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향후 5년간 1500억원 규모의 '경북형 철강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지역 철강사들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포항제철소 부지에서 진행되는 1919억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원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 기후테크 핵심 거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도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동남권 4대 성장엔진 확정...제조AI 거점벨트 조성(2026.08.27) - 산업부와 부산·울산·경남 3개 지자체가 지난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동남권 4대 성장엔진으로 확정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선·우주항공·방산·자동차·원전 제조역량과 완결형 밸류체인에 대규모 기업투자와 정책 지원을 결합해 동남권을 '초격차 제조AI산업 거점벨트'로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 - 3개 지자체는 올해 출범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연내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투자유치 촉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양측으로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분야별 앵커기업과 생태계 구축, 인재 육성, 창업 촉진에 나서며, 산업부는 '메가특구' 지정을 비롯해 재정·금융·세제·제도·인재·기술·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패키지'를 연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 - 동남권은 인구 약 754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366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조선(생산액 79.9%)·우주항공(생산 62.3%)·방위산업(매출 57.5%)·에너지(생산 48.1%)가 전국 1위, 자동차(출하액 34.4%)는 비수도권 1위인 지역으로, 4대 성장엔진 분야 대기업과 중소 협력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생태계가 이미 집적돼 있어 초광역 단위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추진의 최적지라는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메가특구법 정기국회 심의...전북 피지컬AI 특례(2026.08.31) -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입법 대응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개최하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개별 사업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특구를 중심으로 종합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 전북은 경남과 함께 1조 원대 규모의 피지컬AI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미래형 자율공장 플랫폼 구축의 핵심 역할을 맡았으나 연구개발 예산만으로는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인력까지 지역에 끌어모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기업 투자와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 특례를 비롯해 세제·재정 지원, R&D와 인력양성,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법안에 어느 수준까지 담아내느냐가 관건이라는 전망 - 법안에 담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향후 기업 유치와 후속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특례를 실제 법 조문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입법 조율의 중심에 있고 김의겸·박희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하는 만큼 피지컬AI에 필요한 규제·세제·인력·정주 지원의 구체적 반영이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라는 평가
지자체	□ 경북도, 로봇AI교육혁신센터로 융합인재 양성(2026.08.27) - 경북도가 지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에 있는 '로봇직업혁신센터'를 '로봇AI교육혁신센터'로 개편하고 로봇·AI 융합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고 27일 밝히며, 교육 범위를 기존 로봇 중심에서 로봇·AI 융합 분야로 넓혀 제조 AX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기업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 거점 육성을 추진 -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운영하는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295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교육시설로 2022년 완공 이후 산업용로봇과 협동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로봇, 모바일로봇, AI 비전 등 로봇 기반 실습 장비 130여 대를 보유하고 재직자 직업훈련과 직업계고 인재양성 교육 등을 통해 연간 2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60개 자체 교육과정과 4개 민간자격 과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 - 센터는 평생교육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난 3월 대경권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돼 지역 기업의 AX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확대됐으며,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현장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술혁신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부산시, 글로벌 AI 허브 유치 국비 확보 총력(2026.09.01) - 부산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을 최우선 현안으로 잡고 국비 확보전에 나서며, 2일 예정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현안 과제와 2027년 국비 요구 사항을 정리하는 등 정부안에서 빠진 신규 추진 국비 사업의 국회 심의 단계 추가 확보를 추진 - 시는 당면 현안 1순위로 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해양환경공단 등 해양기관, 정책연구기관, 영상 기관 유치를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꼽았으며, UN 기구의 AI 기능을 한국에 집적해 국제사회 공동의 제 해결을 지원하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 250조 원과 고용 1만 명 창출을 기대하며 인천·경기 등 여러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 참여를 확인 - 내년 정부안에 가덕신공항 예산 4311억 원이 포함됐지만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우건설컨소시엄 참여업체 이탈과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는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범정부 인허가 지원 TF 구성을 강조하고 나섰으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구포~가야차량기지 구간 반영 등 핵심 현안의 관철을 도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용인시, 전통시장 AI 스마트 안내판 도입(2026.09.01) - 용인특례시가 전통시장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 나서 공모 사업 국비를 활용해 2027년까지 용인중앙시장 4곳에 인공지능(AI) 디지털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밝히며, 시장 주요 거점에 AI 기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방문객 안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전통시장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 - AI 디지털 안내판은 캐릭터 조아용 외관에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해 점포 위치와 먹거리, 행사,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통·번역 기능을 지원하며, 올해 12월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으로 음성 기반의 직관적 안내와 다국어 지원을 통해 시장을 처음 찾는 방문객과 외국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이용자 친화형 안내 체계를 구성 - 음성 안내와 다국어 지원으로 초행길 방문객과 외국인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고 시장 구석구석으로 이용객 유입이 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통시장에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접목해 방문객 편의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사례로서 향후 첨단 기술 기반 시장 활성화 모델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경주교육지원청,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연구 착수(2026.08.27) - 경주교육지원청이 지난 26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스마트시티DX실에서 관내 고등학교 탄소중립 동아리원 2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 연구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탄소중립 동아리 중 희망 동아리를 공모 신청받아 지역사회 현안 문제와 연계한 심도 있는 프로젝트 연구 활동을 추진 - 프로젝트는 경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의 전문적 연구 인력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주제로 탄소중립 기반 지역 문제 진단과 지역 문제 탐구, 정책 제안 보고서 및 성과 공유회의 단계로 이어지는 연구 활동을 전개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동아리-대학-지자체 연계 탄소중립 거버넌스 모범 사례 구축을 계획 - 황영애 교육장은 지역 소멸의 시대에 지역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는 청소년들의 노력은 그 의미가 매우 크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소통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 탄소중립 정책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형 기후 교육의 확산을 기대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풀무원 · 아모레, 탄소중립 국민참여 캠페인 협약(2026.08.26) - 풀무원식품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아모레퍼시픽홀딩스와 '그린이득 국민참여 확산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히며,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천영훈 풀무원식품 대표와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 권순철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3자 협력을 추진 - 그린이득은 탄소중립 실천을 일상생활로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으로,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민간 기업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함께 국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공동 캠페인 운영 방안을 구성 - 풀무원식품은 기후대응위가 추진하는 '넷제로 해법대전'에도 참여해 대학생 프로그램 '넷제로 프렌즈' 4기에 생산·유통·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제로 제시하고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에 참여할 예정이며, 기업과 국가위원회 간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기대
대학교	☐ KAIST, AI 활용 · 탄소중립 캠퍼스 전환 비전(2026.08.26)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배충식 총장이 24일 대전에서 출입기자단과 2시간가량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을 모든 학문의 공통 기반으로 확장하고 캠퍼스를 탄소저감 지속가능 기술의 실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대학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30분간 AI를 73번 언급하는 등 교수·학생·행정 전반에 AI를 내재화하고 효율화해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운영 구상을 발표 - 배 총장은 인문·사회·예술과 기초과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AI 원리와 AI-X 응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으로 이어지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 고유의 사고와 기초 역량을 기르는 교육부터 AI를 활용하는 교육, AI를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으며, 대전본원 외 문지·서울·도곡 캠퍼스에 운영 중인 건물 77만9800㎡를 지속가능한 캠퍼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제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환경·탄소중립의 생활화를 KAIST가 선도해 다른 공공기관과 학교에 전파하겠다는 방침 아래 보행자 중심 동선 개선과 연구·교육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 등 공간혁신을 추진하며, 현재 99개국 1300여 명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을 복수학위제·학생교환 등 교육·연구 협력으로 대폭 확대하고 입학과 동시에 시작하는 창업교육에 동문 선배가 멘토로 참여하는 등 연구중심 대학의 혁신 방향을 제시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SGC에너지, 연내 AI 데이터센터 착공(2026.08.27) - 종합 에너지 기업 SGC에너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담 사업법인 'SGC AI인프라'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히며, 한국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FI)이자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는 가운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AI 인프라 사업을 추진 - SGC AI인프라는 군산 국가2산업단지 내 11만5000㎡ 부지에 8700억원대 투자 규모의 모듈형 방식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올해 3분기까지 60메가와트(MW) 규모 데이터센터의 건축 허가와 착공 신고를 마치고 4분기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설해 최대 300MW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침을 구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협약에 따라 전라북도와 군산시, 산업단지공단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SGC에너지는 사업 부지 확보에 이어 금융·행정 지원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는 민관 협력 체계를 기점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인프라를 새로운 미래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체질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
대학교	□ 부산대 대학원생, AI 활용 특허 11건 출원(2026.09.01) - 부산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인공지능 도구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이틀 동안 특허 11건을 전자출원하는 성과를 확보하며,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페어필드 바이 매리어트 부산 송도 비치에서 열린 'PNU STAR-Academy 특허캠프'에서 참가자 21명 가운데 18명이 명세서 초안을 완성하고 이 중 13명이 출원인과 발명자에 모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실습 성과를 달성 - 실습에는 비투원의 특허 AI 시스템 '아이엠(AIEM)'이 활용돼 학생들이 기존 기술을 찾는 단계부터 발명설명서·명세서 작성과 온라인 접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으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계승균 교수와 윤은영·전용철 변리사, 김주연 비투원 대표 변리사가 특허의 기본 개념과 명세서 구성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함께 진행해 이론 학습과 AI 기반 실습을 결합한 지식재산 교육 과정을 구성 - 결과물은 신규성과 구체화 수준, 명세서 완성도, 사업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돼 우수작 3건에 총 18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됐고 최우수상은 'AI 기반 개인 위생 지원 장치'를 제안한 과학기술혁신전공 박용대 씨가 수상했으며, 참가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하는 등 AI 도구를 활용한 대학원생 지식재산 창출 교육 모델의 실효성을 확인
	□ 빌 게이츠, AI 격동기 위협 대비 촉구(2026.08.27) -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격동의 AI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제목의 에세이를 게재하고, AI 시대로의 전환이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AI가 초래할 혼란과 충격에 대한 시급한 대처를 촉구 - 게이츠는 AI가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서 10년 안에 빠르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며 AI 시대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일자리 감소, AI를 이용한 범죄 위협, 아동 발달·대인 관계 악영향 등 세 가지 큰 위협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과학·의료 분야 혁신과 저소득 국가의 농업 기술, 정부의 복지 서비스는 AI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 - 그는 AI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국제 감독기구 설립과 AI토큰·로봇세 부과, 인간 전용 일자리 지정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업계 경영진과 자신의 제안을 논의했지만 규제와 관련된 생각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AI와 평등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목소리와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하는 등 AI 전환기 대응 논의의 확산을 시사
해외	□ 트럼프, AI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에 반박(2026.09.0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1월 중간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며,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가 데이터센터를 원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경우뿐이라고 밝히는 등 고조되는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 입장을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데이터가 지배하게 하라며 데이터센터 반대 주장이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앞서 지난 23일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사회는 실수하는 것이며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와 돈을 만들어낸다고 언급하는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데이터센터 지지 여론 조성에 나서는 행보를 전개 - 반면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이들은 전력 수요 급증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연결될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 정부와 지방정부도 전기요금과 전력망 부담, 냉각수 사용에 따른 수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입지 규제나 별도 요금 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공화당 우세 주와 민주당 우세 주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등 AI 데이터 센터 확산을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의 지속을 시사 □ 이란, AI 활용 미 선거 공작...메타 계정 삭제(2026.08.28)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적대적 위협 보고서'에서 미국 중간선거(11월 3일)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SNS상에서 선전 공작을 벌여온 이란 기반 페이스북 계정 4개와 인스타그램 계정 31개를 삭제했다고 밝히며, AI를 접목해 점점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대응 조치를 발표 - 보고서는 이들 계정이 워싱턴DC와 샌디에이고, 애틀랜타 등 미국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활동가·학생·디자이너 등으로 위장하고 이란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미국이나 캐나다 서버를 경유해 접속했다고 설명했으며, AI로 만든 밈을 퍼뜨리며 일반적인 밈 계정처럼 활동하다 인프라 구축 후 특정 정파에 반대하는 견해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민 문제 관련 콘텐츠를 확산했고 위장 계정의 소식을 받은 계정 수가 7만9400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 - 메타는 AI 기반 콘텐츠 생성이 과거에는 가장 자원이 풍부한 행위자가 가끔 사용하는 전술이었지만 이제 거의 표준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공개된 조직적기만행위(CIB) 관련 계정 모두가 기본적인 프로필 사진 생성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생성 AI를 활용했다고 분석하고, 이 같은 기만 계정을 자동 감지하는 AI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히는 등 생성 AI를 동원한 여론 공작 위협의 일상화 추세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을 시사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